



第6回 科學의 날 式典

中央庁 中央會議室에서 盛大히 舉行

第6回 科學의 날 記念式이 金鍾泌국무총리 崔亨燮 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한 3府要인과 科學技術界, 教育界, 産業界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상오 11시 中央廳 중앙회의실에서 배풀어졌다.

全國民의 科學化를 다짐하고 全國民의 參與와 意慾을 鼓吹하는 記念式에서는 大統領賞을 받은 鄭文基 博士등 11個人士 및 機關에게 73年度 科學技術賞을 施賞했으며 例年과는 달리 今年에는 團體表彰으로 韓國科學技術研究所에 大統領賞을 表彰하였다.

이날 記念式에서 金總理는 致辭를 통해 “經濟開發을 통한 國力培養과 近代化의 촉진을 아울러 이룩하기 위해선 科學技術이 집중적으로 창달 진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時點에서 科學技術人이 두 어깨에 걸머진 使命과 責任은 莫大하므로 “여러분은 前보다도 더 奮發하여 經濟開發의 第一線에서 貢獻해 주셔야 하겠고, 同時에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水準向上을 爲해서 基礎的인 研究에도 精勵”해달라고 부탁했다.

金總理는 “全國民의 科學化”가 이룩되는 날 우리는 우리 祖國의 近代化를 이룩하였다고 自負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科學技術人은 우선 “國民을 爲한 科學”, “國民에 依한 技術”을 당장의 行動綱領으로 삼

아 科學技術의 自立化 달성에 분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崔亨燮長官은 經過報告를 통해 “科學의 날”을 制定하고 이날을 記念하는 참다운 뜻은 모든 國民이 科學技術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科學을 崇尚하며 技術을 익히는 氣風을 振作하는 同時에 科學技術人으로서의 使命을 깊이 自覺하고 과학기술진흥의 決意를 드높이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崔長官은 이어서 오늘 “科學의 날”을 契機로 우리 다함께 科學技術의 廣場에서 굳게 뭉쳐 國家와 國民이 바라는 科學技術人이 되도록 힘써 나가자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國會議長賞=張信堯 (국민체력개선에 대하여)
- ▲ 大法院長賞=尹世元 (유리를 반도체소자로 이용)
- ▲ 國務總理賞=田豐鎭 (제지공업의 현대화에 기여)
- ▲ 經濟企劃院長官賞=康明順 (기계공업발전에 기여)
- ▲ 科學技術處長官賞=全相運 (과학기술사 연구)
- ▲ 內務部長官賞=鄭萬基 (농촌생활의 과학화)
- ▲ 文敎部長官賞=慶北학생과학관(지방과학교육진흥)
- ▲ 商工部長官賞=國際電氣기업(철탑 철골의 설계및 제작기술 개발)
- ▲ 한국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長賞=孫永壽 (과학기술 지식 보급)